

스크린쿼터 비상대책위 정지영 위원장

“끝나지 않은 싸움... ‘원상’ 회복할 수 있어”

- 스크린쿼터는 이제 물건너 간 건가?
▲ 영화인들 가운데 일부가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스크린쿼터 투쟁이 끝나지 않은 싸움을 확인시켜 주게 될 것이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쿼터 축소 방침과 한

미 FTA 협상 방침이 처음 발표된 이후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이 잘 안 알려졌으나 지금은 여러 투쟁과정을 통해 언론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한미 FTA를 우려하는 모임이 생겼다. 스크린쿼터 조정을 포함, 한미 FTA 협정을 위한 4대 선결과제를 원상회복 시키지는 움

직임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이 중단되거나 혹은 연기된다면 스크린쿼터는 원상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가 아닌 국회를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국회를 통한다는 얘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던가?

▲국회에서 법으로 확정시킴으로써는 얘기가. 스크린쿼터 제도는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국회에서의 법 제정 여론은 지금 급격히 확산돼 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스크린쿼터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조치다. 따라서 이번 축소 시행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쿼터 일수가 축소된다 해서 한국영화 한두 달 안에 폭삭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바로 지금보다는.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스크린쿼터 축소 한국영화 어디로 가고 있나

“2년 후에 큰 위기 올 것”

영진위, 부정적 전망 보고서
이통사 할인제 폐지도 악영향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축소 ▲이동통신사의 극장요금 할인제도 폐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시장 싸움이 등 국내 영화계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의식에 빠져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화인들은 한국영화가 할리우드에 비해 경쟁력 면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번 쿼터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작분야와 홍보마케팅 분야, 배급 분야에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외화 배급과 극장 종사자들은 스크린쿼터 축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쿼터 축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모두 합해 평균 2.65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은 2.74년, 긍정적은 2.58년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영화진흥위원회가 투자와 제작, 배급, 극장, 마케팅 분야 등 영화종사자 161명을 대상으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영화산업 종사자의 경기 전망’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진흥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스크린쿼터가 73일로 축소됨에 따라, 이후의 경기를 전망하고 영화산업의 지원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한국 영화계의 거목 임권택(70) 감독이 3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정부가 반쪽 년 우리 영화의 미래, 스크린쿼터 원상 회복을 향한 투쟁 오늘부터 시작입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임감독은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1인 시위의 마지막 주자로 섰다.

스크린쿼터 문제를 가늠할 한국영화의 경쟁력 부분에 대해 영화 종사자들 다수가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히려 다소 앞서고 있으며, 대중성과 소재 면에서는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완성도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영화의 전반적 경쟁력을 수치로 환산하면 5점 만점에 2.97점으로 나타났다. 1점은 경쟁력이 ‘매우 낮음’을, 2점은 ‘다소 낮음’을, 3점은 ‘큰 차이가 없음’을, 4점은 ‘다소 높음’을, 5점은 ‘매우 높음’을 각각 나타내는 지수, 따라서 영화인들은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할리우드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쿼터 축소 결정에 따른 한국영화의 경기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

은 5점 만점에 2.21점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점은 ‘매우 부정적 영향’을, 2점은 ‘다소 부정적 영향’을, 3점은 ‘별 영향 없음’을, 4점은 ‘다소 긍정적 영향’을, 5점은 ‘매우 긍정적 영향’을 각각 나타내는 지수에 따라 서 영화인들은 이번 축소 결정이 한국영화 산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이동통신사의 영화관람료 할인 혜택 폐지로 인해 영화계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영화계 관계자들은 이동통신사의 할인혜택이 없어짐에 따라 사실상 극장 입장료가 2천원 인상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40% 정도의 관객 감소율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전문기자-ohdjn@hotmail.com



‘한국적 SF’ 비전 제시

봉준호 감독 ‘괴물’ 시사회

올 여름 최대 화제작인 봉준호 감독의 ‘괴물’(제작 청어람)이 4일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다.

총제작비 140여억원(순제작비 110억 원 포함)이 투입된 ‘괴물’은 스토리와 CG 기술의 절묘한 공합을 통해 한국적 SF의 비전을 제시했다. 영화가 상영되는 119여분 동안 생생히 살아있는 캐릭터, 관객을 몰입시키는 힘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드러마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괴물’은 또 한번의 웰메이드 상업 영화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한국영화의 기술력을 실험한 괴물 캐릭터는 그 독창성과 함께 화면에 완벽하게 녹아 들어갔고,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는 살아 숨 쉬며, 영화를 지탱하는 드러마는 한순간도 호흡을 놓치지 않고 유연

하게 흘러간다. ‘살인의 추억’에서 보여줬던, 감정을 요리하는 봉감독의 솜씨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발휘돼 회로애라의 감정이 적절한 타이밍에서 관객을 공략한다. 감독은 단 한 번도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지 않았지만 영화와 관객 사이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와 감동이 놓여있다.

무엇보다도 괴수가 등장하면서도 괴수 영화의 전형성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방점을 찍는다. 극 초반 난데없이 출현한 괴물이 혼을 빼놓지만 어느새 영화는 주인공 가족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과정에서 관객은 더 이상 괴물의 활약을 기대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는다. 괴물과 사투를 벌이는 가족 구성원의 면면과 그들을 둘러싼 불합리한 환경, 그리고

그들의 외롭고 힘겨운 모습에 몰입하게 된다.

배우들의 연기력에도 찬사를 보낼 만하다. 송강호는 다소 주춤했던 자신의 이름값을 한순간에 회복시켰다. 난생 처음 ‘평범한 아버지’를 연기했다는 변희봉은 연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해줬다는 봉감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배우나 역사의 왜 그가 전문가들의 눈에 일찌감치 빛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중들에게 새삼 증명해 보인다.

봉감독은 한국 대중 영화가 지향해야 하는 점을 명확히 보여줬다. ‘괴물’은 약자가 겹쳐 젓맛으로 묻든 지금의 한국 영화에 광명을 던져줄 것이 확실하다. 12세 관람가. 27일 개봉.

/객선정기자 ks@kwangju.co.kr

해외 영화계 이슈

50대 이상 장·노년 관객들이 미국 영화업계에서 ‘블랙 시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기사에서 “지금까지 50,60,70대 관객은 할리우드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불과했다”면서 “하지만 이 관객층을 겨냥한 몇몇 작품들이 당초 우려를 깨

美 영화계 ‘실버관객층’ 잡아라

고 흥행에 성공함으로써 중노년층 시장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작품이 ‘수전을 찾아서’로 잘 알려진 수전 세이들먼 감독의 2005년도 신작 ‘보이톤 비치 클럽’. 노년층 거주자가 많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다빈치

코드’를 뛰어넘는 흥행 성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작자와 배급업자들로부터 찬밥 취급 당하는 실버층을 겨냥한 ‘보이톤 비치 클럽’은 오는 몇몇 지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8월 4일부터 미 전역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오동진 영화전문기자 ohdjn@hotmail.com

Advertisement for TORCH office furniture featuring various office chairs and desks. Text includes '사무용의자 전문생산업체' and '토치 광주총판'.

Advertisement for Party Food Service (파티외식신입) featuring various party food options like '출장뷔페', '도시락납품', and '위탁급식'.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